



한인회보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The Wash.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P.O.Box 24992 Seattle, WA 98124
James H. Kim Publisher
Soo Ho Lee Editor

VOL 4 NO. 8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SEPT 1977

1978년 한인회 회장및 이사 후보자 추천 공고

씨아를-와싱턴주 한인회 회칙 제4장19조에 의하여 지난 1977년 9월 12일에 있는 공동회의에서 다음과같이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하고 1978년 한인회 회장과 이사 후보자 추천을 공고하오니 1977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요령에 의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1.후 보 직 - 회 장 1 명
부회장 (총회시 직선함) 2명
이 사 2 명
- 2.후 보 자 격- 본회의 회원으로서 최소 2년
이상 본회 의무를 다한자
- 3.추 천 방 법- 별첨추천용지에 정회원(회비
납부자)의 추천을받아 후보자
의 동의서명을 필한후 1977년
10월 22일까지 선거관리위원
에 제출한다

- 4.추천된 회장및 이사는 회칙19조3항에 의거하
여 총회 15일 이전에 이를 공고한후 총회시
무기명 비밀투표로서 선출한다

- 5.가) 선거 일자 : 1977년 11월 12일(토)오후7시
- 나) 선거 장소 : 104-17th Ave. S.
Seattle, WA.(at Yesler)

- 6.입후보등록기간- 1977년 10월 1일부터
1977년 10월 22일까지

- 7.등록처 - 8910 189th PLACE S.W
Edmonds WA. 98020

- 8.기타사항- 선거세칙에 관한 문의 사항
은 선거관리위원장에게(전화:
778-1972)문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유 첨 : 회장및 이사 입후보자 추천서

1977년 9월 12일

씨아를 - 와싱턴주 한인회

1977년 선거관리 위원장 신 호 범

위 원 이 현 기 이 증 익

이 손 모 김 명 원

안내

◎ 통신 강의록 교육

보통 기술학교나 대학교를 재정적인 문제로 또는 영어 회화 부족의 이유로 다니지 못하는 분들은 집에서 편리하게 공부 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라살 통신 교육 대학교에서 다음 과정을 공부 할 수 있습니다. 경리, 고등경리, 행정보좌, 에어컨디셔닝, 병방장치 정비, 미술, 대학 학위(정치학, 운항학, 상업 경영학, 호텔 및 식당 경영학), 컴퓨터 프로그래밍, 상업 경영, 치과 의사 보좌, 다철 정비, 제도, 전자 통신, 법학, 고등학교 과정, 호텔 경영, 부동산 사업, 비서 교육, 기계 숙기, 감독 경영, 교통 및 수송, 수필.

완료 기간: 6개월 내지 2년.

자격: 영어 해독 능력.

학비: 500불 ~ 700불 (월부제, 매월 35불) 교과서 대금 포함.

문의 처: P.O. Box 273

Seattle, WA. 98125

(486-2101 오후 6시 이후)

◎ Asian Counseling & Referral Service

아시아인을 위한 상담소로서 한국인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한국인은 김 태 씨와 이 양자 씨입니다. 한인 봉사센터와 서로 협력하여 한국인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 한국 무용 연구회

King County Department에서는 10월 둘째 주 부터 10주간 동안 매주 수요일에 한국 무용 연구회를 가진다고 하는데 교사에는 백 인희 씨라고 한다. 어린이는 오후 6시 ~ 7시 반, 성인은 7시 반 ~ 9시라고 한다. 흥미 있는 사람은 박 암 선생님께 연락하면 된다.

전화: 362-9565

민원 서류 양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아틀·타코마 지역에 거주하는 여러 교포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인 봉사센터에서는 얼마전에 샌프란시스코 한국 영사관에 요청하여 각종 민원 서류 양식을 구비해 놓았습니다. 필요하실때는 언제나 봉사센터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한인회 법률고문

한인회 법률고문 GORDON S. CLINTON씨는 특히 한인들의 법적인 문제를 돕겠다고 합니다. 필요시에 이분을 찾아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한인회에서 왔다고 말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사무실: CLINTON, FLECK
GLEIN & BROWN

GORDON S. CLINTON

Attorney at Law

2112 3rd Ave, Suite 500
Seattle, Wa. 98121

· 전화: 624-6831

성인을 위한 무료 영어 교육 안내

성인을 위한 무료 영어교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성인 기초 영어 교육 (ABE)
2. 제2 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육 (ESL)
3. 시험 준비를 위한 영어 교육 (GED)

· CLASSES

- ABE/GED/ESL
월. 화. 수. 목. 금 - 오전 9시 ~ 12시
- ESL - 월. 수 - 오후 6:30 ~ 9:30
- ABE/GED - 화. 목 - 오후 6:30 ~ 9:30

· 문의 처: White Center Continuing Education Center
97th and 8th S.W.

· 전화: Fred Martin 839-1654 나 또는
The Center 763-2126

한인 봉사센터 Open House

이미 여러분께서 아시는바와 같이 시아틀에 봉사센터를 개설한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늦은 감이 있으나 여러분을 모시고 Open House를 하려고 하오니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 관계 상 참석 여부를 전화로 미리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날짜: 1977. 10. 14(금) 오후 6시
- 장소: 한인 봉사센터 (우와지마야 앞)
612 6th Ave So.
Seattle WA, 98104
- 전화: 624-7604, 7607.

Job에 관한 문의는 오후 2시 이후에

한인 봉사센터에서는 교포들의 직장 알선을 위하여 노력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하는분들은 오후 2시 ~ 5시 사이에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직원이 오전중에는 교육을 받기 때문에 자리에 없습니다.
전화: 624-7604

와싱턴주 한인 주소록 발간 추진중

시아틀·타코마를 중심으로한 와싱턴주에 거주하는 모든 한국인들의 주소를 정리하여 한권의 책(DIRECTORY)으로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의 주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협조하여 보내 주시지 않으면 한인 주소록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빠져지게 됩니다. 주소록이 출판된 후에 "우리 집은 왜 주소록에 없는가?" 라고 하셔도 이미 늦은 때이니 이점 생각하셔서 이름(영·한) 주소(ZIP), 전화, 가족수(남·녀)를 백지에 적어서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에게도 알려서 누락되지 않도록 합니다. 한인회비 납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11월 초순 발간 예정이며, 인쇄 관계로 주소 수집은 10월 5일 까지 마감 합니다.

교포 명단 수집에 있어 각 교회 목사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는것을 감사 드립니다. 한장의 종이에 여러 세대를 함께 쓰셔도 좋겠습니다. 또한 주소록에 실릴 광고도 접수중이오니, 각 교회, 한국인 업체에서는 10월 5일 까지 보내시면 됩니다.

- 보낼 곳: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 문의 전화: 624-7607
624-7604

부동산

각종사업투자, 주택매매알선



具 範 會

Robert B. Koo

17964 AURORA AVE. NO.
SEATTLE, WA. 98133

OFF. 542-1181
RES. 546-6746

봉사센터, 한 달의 결산

Counselor 하 영희

화씨 90~100를 승강하며 폭염을 뜨겁게 과시하던 여름은 차츰 물러가고, 이제 조용히 내리는 빗줄기 사리로 구월의 소리는 들려온다. 옛말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격언이 있듯이 피속하나 우리 '한인 봉사센터'로 우선 '시작'을 보지된 동기로 보아 펴 다행으로 알고 지난 7월 19일 발족을 본 봉사센터는 교포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상상외로 눈부신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봉사센터를 노크하는 소리는 그 한계가 광범위하다고 할까 펴 다양각색으로 등장했고, 나 자신 Counselor의 입장에서 볼 때 다만 평범한 일들만은 아니었다. 그 사항들을 대략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내용

1. Client Advocate를 취급하는 단체 방문: 위원들의 방문을 받고 우리도 방문 견학.
2. 입원 환자 방문: 의사 소통을 위한 통역.
 - 한국 신문, 여성중앙 등을 사다 줌.
 - 환자의 경과를 전화로 의사에게 전달 (7회)
3. 첫 입원 경과를 Check up해 보려는 분의 상담: 의사 지시대로 Step by Step 산모에게 Paper의 설명서로 부터 시작하여 Check up이 끝날때 까지 통역. 전화 상담 (3회)
4. 씨아틀에 갖 오신 분으로 어느 교회를 나가야 좋을지 - 좋은 벗을 만났으면 하는 분의 상담.
5. 아파트를 구하려는 분의 상담.
6. Job을 위한 상담: 이 경우는 전화로나 직접 사무실로 찾아 오시는 경우가 많고, 시간을 다루는 주 상담 문제의 하나다.
7. 타주에 사는 분으로 친척을 찾는 문제 상담.
8. U.S. Customs에서 한국인 통역 요청 상담.
9. 호적등본을 주무 번역해 달라는 미국 변호사의 요청 상담.
10. 이민과 영사관의 제반 서류를 요청하는 분들의 요청 상담.

11. U.S.A. Housing of Urban Development에 아파트 Rent Increases에 관한 내용에 진정서 제출.
12. 자동차 Ride와 시버지역 안내 및 통역이 필요한 부의 요청 상담.
13. 억울한 경우에 있는 한인들을 위한 변호사의 요청 상담. (7회). 진정서 작성.
14. 가정 문제 상담 (이혼) ... 18건.
15. 귀장 결혼으로 혐의를 받은 경우 상담.
16. U.S. Shelter에서 교포의 문제로 수차 통역을 요청 해 음.
17. 미국인 남편의 시련으로 부터 큰 충격을 받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젊은 교포를 방문하여 대화를 받아 주고. 통역함.

문제에 당착 할 때 마다 가슴이 아프고 이상한 회의감이 쌓일 때가 많으나 어떻게 뚫고나가 상대방에게 기쁨을 찾아주고 싶다. 특히 병원이나 공학, 이민, 변호사 사무실을 출입해야 할 문제들이 제법 있었는데 나 자신 미숙하고 언어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legal matter에 있어서 법적인 술어들이 오고가는 대화나, 서류를 대할 때는 콧등에 식은땀을 감출길이 없었다. 좋은 곳이나 우리 교포를 위한 길이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만 결코 만인의 마음을 만족시켜줄 해결책을 구하기란 그리 쉬운일만은 아니었다. 본인의 미숙한 사고방법일지 모르나 깊이있고 무게있는 일처리를 함으로써 우리 교포의 분주한 생활속에서 삶의 여유있는 방향도표를 갖고 더욱더 명량한 외주생활을 위한 산 대화를 나누고 싶은 심정이다. 설명 모자라도 서로 이해 옹호하여서 이 사회에 사는 한, 교포사회의 배려는 한걸음 한걸음이 심오한 의미를 지녀서 우리 후손의 자랑스러운 민결음이 될 터전을 마련코자 하는데 그 출발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 누구도 와서 참여 함으로써 공동의 기쁨을 나누며 후손과 공동의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 소리없이 성을 쌓다보면 거기 - 또 하나의 기쁨이 있지 않을까?

(필자: 한인 봉사센터 주무. Counselor)

News 뉴스

○ 8월 13일 Woodland Park에서 있었던 8·15 행사에는 약 100여명의 교민들이 모여 기념식을 가졌는데 이날은 장소를 잘 찾지 못하여 돌아간 사람들이 다수 있었던 것 같다. 식이 끝난 후 어린이 그리기 대회가 있었는데 입상한 어린이는 다음과 같다. 특상: Kim, Julie, (3살) 1등: Patricia (8살) 2등: Eun Ji (6살) 3등: Joon (5살) 한편 점심을 끝낸후 축구장에서 1시30분 부터 약 2시간 동안 씨아틀·타코마 친선 축구시합이 있었는데 선수들의 우수한 기술이 관중들은 박수를 보냈으며 2:1로 씨아틀 팀이 승리하여 우승 트로피를 차지 하였다.

○ 8월 10일 West Seattle Royal Fork에서 한인회 월례 임원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는 봉사센터 운영문제등 여러가지가 의논 되었다.

○ 한인회 이사장 신 호범씨는 8월 12일, 대학교 관계 업무차 San Francisco에 갔다가 그 다음에 돌아 오셨다.

○ 더위가 한창이던 8월 11일 오후, 허 권씨는 시원한 플라 6Can을 사들고 봉사센터를 방문, 직원들을 격려하여 주었다.

○ 씨아틀·타코마지역 한인 연합 합창단은 김 종원 박사님을 단장으로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김 종원 박사님은 현재 미국 감리교 총회의 일을 보시면서 특히 한국인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여러 방면에서 도와 주고 있다고 한다.

○ 지난 8월 중순께 한국에서 무역업을 하는 영진 교역사 권 국사장께서 한인회 봉사센터를 방문, 금일봉을 전하면서 봉사센터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그리고 본국에 돌아가서 서로 도울수 있는 길을 마련해 보겠다고 하였다.

○ 이화여대 동창회 소식

지난 광복절 저녁 이대 동창회는 한국에서 이곳을 방문하신 약대 안 영옥 교수를 모시고 태화 식당에서 오랫동안의 모임을 가졌다. 이날 식사와 간단한 환담시간 후에 3년간 동창회를 위해 수고해 오신 이 지속 회장의 사업과 함께 신 임원을 선출했다. 18일 저녁에 회장 Sonia 김과 부회장 설자 Warnick(타코마), 총무 박 원복, 회계 이 인순 등 새 임원들은 교문인신 김 간난 여사와 Mrs. Armstrong을 모시고 구 회장실에서 첫 임원회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는 10월중 예정인 총장선생님의 방문을 앞두고 현 회원 파악과 증원을 힘쓰기로 하고 회원 List를 작성기로 결정했다. 모든 숨은 회원들의 자진 연락과 협조를 바라며 연락은 소니아 김 (363-2617)이나, 타코마 지역은 Mrs. Warnick(752-3765)께 하기 바란다.

○ 회갑면 성료

원 자준씨는 8월 13일, 회갑연을 Royal Fork에서 성대히 거행 하였으며, 안 성진 목사님은 8월 25일 '사해'에서 또한 회갑연을 베풀었으며, 한 승 남씨는 8월 28일 북경 식당에서 회갑연을 거행 하였다고 한다.

○ 토요일 축구회

매주 토요일 아침에 모여 심신을 단련하며 친목을 도모해 온 토요일 축구회는 우기에 접어드는 일기로 인하여 당분간 활동을 중지한다고 하며 내년 봄에 다시 계속하리라고 주무이신 권 영길씨는 말하였다.

씨아틀 한국여행사		
Korea Travel Service		
미국방위 특별환인, 국제 국내 항공권 판매		
가족초청 및 제반여행 수수대행		
이	규	영
LEE	KYU	Y
Tel. (206) 623-9290 (Office)		1928 Second Ave.
(206) 322-3782 (Home)		Seattle Wash. 98103

이 인간의 삶과 신념

목사 정 하경

성경의 첫째권 창세기 47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야곱이 일백 삼십세 되던 해에 '힘약한 세월을 보냈다'고 자기가 걸어온 괴로운 인생 행로를 솔직히 털어 놓았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세월도 힘약한 것은 부인 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삶을 갖는 우리에게 필요하고 있어야 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지녔던 놀라운 믿음과 굳은 신념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속에서 '내가 능력이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빌 4:13) 자신 만만하게 신념에 넘치는 외침을 우리에게 들려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지나치게 자고하는 마음으로 외친것이 아니라 이는 자기가 온전히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자기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심으로, 그 주님이 주신 주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어떤 어려운 일일지라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결코 바울이 자기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모든것을 할 수 있다고 자만하는 태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기를 완전히 '무'로 돌리는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 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믿음은 참되게 그리고 살아서 약동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훌륭한 직장이나 높이 평가받는 기능이나 여유 있는 재물이 인간의 삶의 방편으로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고달픈 이 만생황에 발로 시들어가고 갈급해져가는 심령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기 때문에 물질과 명예만으로는 만족할수 없습다. 인간의 삶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조건보다 오히려 차원을 달리하는 정신적 요소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바탕에 확실한 어떤 신념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공허하고 불안하며, 고독과 절망, 그리고 고민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칸트는 '할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은 모든것을 실제에 있어서 가능케 한다고 보았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내일'에 대한 소망 더욱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가 하나가 되는 은혜의 경지에(삼차원의 세계) 이르렀을 때에 그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체험 할 수 없는 신비스런 만족과 기쁨을 맛 보았던 것입니다. 언제나 신념이 넘치는 삶은 어떠한 고독이나 역경, 핍박, 비난일지라도 넉넉히 극복 합니다. 그리고 신념속에서 사는 사람은 자기에게 닥쳐오는 온갖 비판, 낙심, 자포자기, 불평, 원망등의 모든 시험을 쉽게 물리치고 승리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 해서 누구든지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받으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고 큰 용기와 인내를 얻게 됩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창조의 생활을 계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 안에서 참되게 살면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아울러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생명을 얻어 참다운 의미에서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필자: ● 씨아틀 한인 침례교회 시무 ●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속에서 '내가 능력이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빌 4:13) 자신 만만하게 신념에 넘치는 외침을 우리에게 들려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지나치게 자고하는 마음으로 외친것이 아니라 이는 자기가 온전히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자기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심으로, 그 주님이 주신 주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어떤 어려운 일일지라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결코 바울이 자기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모든것을 할 수 있다고 자만하는 태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기를 완전히 '무'로 돌리는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 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믿음은 참되게 그리고 살아서 약동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훌륭한 직장이나 높이 평가받는 기능이나 여유 있는 재물이 인간의 삶의 방편으로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고달픈 이 만생황에 발로 시들어가고 갈급해져가는 심령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기 때문에 물질과 명예만으로는 만족할수 없습다.

인간의 삶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조건보다 오히려 차원을 달리하는 정신적 요소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바탕에 확실한 어떤 신념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공허하고 불안하며, 고독과 절망, 그리고 고민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칸트는 '할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은 모든것을 실제에 있어서 가능케 한다고 보았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내일'에 대한 소망 더욱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가 하나가 되는 은혜의 경지에(삼차원의 세계) 이르렀을 때에 그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체험 할 수 없는 신비스런 만족과 기쁨을 맛 보았던 것입니다. 언제나 신념이 넘치는 삶은 어떠한 고독이나 역경, 핍박, 비난일지라도 넉넉히 극복 합니다.

그리고 신념속에서 사는 사람은 자기에게 닥쳐오는 온갖 비판, 낙심, 자포자기, 불평, 원망등의 모든 시험을 쉽게 물리치고 승리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 해서 누구든지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받으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고 큰 용기와 인내를 얻게 됩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창조의 생활을 계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 안에서 참되게 살면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아울러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생명을 얻어 참다운 의미에서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필자: ● 씨아틀 한인 침례교회 시무 ●

출산 ○ 김 건상씨 8월 1일 득녀.
○ 백 순주씨 8월 1일 득남.
○ 정자 Jordan 8월 2일 득남.
○ 윤 석진씨 9월 8일 득남.

출산 ○ 김 건상씨 8월 1일 득녀.
○ 백 순주씨 8월 1일 득남.
○ 정자 Jordan 8월 2일 득남.
○ 윤 석진씨 9월 8일 득남.

자랑스런 한국인

이 동립씨

참되고 성실한 사람들은 항상 남을 돕기를 애써 행하며 돕는 일을 또한 선전의 목적으로 하지않고 조용히 추진한다. 여기 우리 한인사회에도 그런분들이 계시다는 것은 자랑 할 일이라 생각된다. 어려운 한인회와 봉사센터 운영을 위하여 항상 말없이 뒤에서 돕는 분이 바로 이 동립씨이다. 적지않은 보조금을 계속 보배 주시면서도 조금도 자신을 들어버거나 자랑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한인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말없이 돕고 계신다. 마취 전문의로서 부인과 함께 슬하에 1남 3녀를 두고 단란하게 별부에서 살고 계시는 이 동립씨는 시간이 있으면 책을 벗 삼는 독서 생활의 취미도 갖고 계시다고 한다. 협조에는 인색하면서도 불평과 비판에는 항상 영웅처럼 말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가끔 볼 수 있다. 때로는 자기가 속해있는 단체나 혹은 기관 천지들을 울타리 속에 넣어두고 전체 한인 사회의 발전에 대해서는 냉담한 영타리 지도자도 우리의 주변에서 가끔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동립씨와 같은 숨은 협조자, 진실된 협조자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닐수 없다. 이 동립씨의 조용하고 값진 협조는 우리 한인 사회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줄 안다.

중화요리 태화각 · 수타우동 ·
· 한국에서 20년간 순북경식 음식으로 한국인 구미에 맞게 해 드린 경험 있음.
· 회갑 피로면 · 단체 손님 특별 서비스.
주소: 409 Maynard Ave. S. Seattle
전화: 622-9701 · 9702

한인 업체 동정

☀ KOREA CENTER
한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KOREA CENTER는 공사 진행이 다소 늦어져 예정일 보다 OPEN이 약간 늦어지리라고 한다. 스펜사 김 씨의 말에 의하면 9월 25일 개사가 될것 같다고 한다.

☀ Auto Repair shop, 허 남일씨 OPEN
교포 허 남일씨는 8월 22일 10059 Aurora Ave, N 에 Auto Repair shop 을 개업 하겠는데 많은 교포들의 성원을 바란다고 한다.
전화: 525-5778

☀ 구 범회씨 부동산 회사 개업
전 한인회장직을 지낸바 있는 구 범회씨는 얼마 전 부동산업을 시작하였는데 교포들의 이용을 바란다고 한다.
전화: 546-6746

☀ 안 병용씨 부동산 부로커 면허 획득
얼마전에 부로커 면허를 획득한바 있는 안 병용씨는 자신이 경영하는 부동산 회사에서 교포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데, 새 전화는 535-3000 이라 한다.

☀ 장 주용씨 식당 개업
타코마 1916 Jefferson에서 교포 장 주용씨는 New Tokyo 식당을 개업 하였다고 한다.
전화: 272-8240

☀ 필 기봉씨 식당 개업, 타코마
8월 1일 교포 필 기봉씨는 757 So. 38th에 중국 식당 '아서원' 을 개업 하였다고 한다.
☀ 최 석봉씨 Restaurant 개업
최 석봉씨는 9월 16일 식당 Art Drive in Restaurant를 개업 하였다. (Bellvue).

길고픈 길

배 동 학

하늘이 이렇게 멀어도 좋다
 더듬질 할 수 있는
 빠른 길이 아니어도 좋다
 푸르름이 깔린 원색의 하늘 밑에서
 진종일
 가랑잎 같은 가냘픈 생명을 만질수 있는
 배 조그만 어린 손이 있음 더욱 좋다

어디선가 이런 때
 지구의 반대편 쪽으로 부터
 무섭게 짓눌리는 낮은 운물 때문에
 심연속의 아우성이 들리는
 배것이 아닌
 배것이 되지 않아야 하는
 또 다른 고통이 있어도 좋다

가다가
 한적한 거리에 걸터 앉아
 서운한 악수를 앞에 놓고,
 영 떠나야 할
 가슴 저린 사연이 있어도 좋다

거리에 서서
 이렇게 낮은 지역의 추녀 밑에서
 허기진 피로의 트림속에서
 망각의 서늘한 신어를
 기억하지 않아도 좋다

거리를 거닐며
 텅 빈 마음의 길썬에
 낙엽이 깔리기 전
 색채 낮은 둔탁한 풍경 소리 같은
 그런 외로움을 날리며
 생명처럼 소중한 마음을 안고
 종일도록 길고픈 길이 있다

교회 소식



- "한인 연합 장로교회" 창립 (타코마)
 지난 8월 타코마 지역에는 또 새로운 교회가 창립 되었다. 교회를 설립하신 옥 병호 목사님은 한국에서 22년간의 목회 경력이 있고, 평서 노회 노회장, 경기 노회 서기등을 역임 하였으며, 집사, 장로직으로 제시다가 40세에 신학을 하였다고 한다. 이 교회는 9월 4일 오후 2시에 창립 예배를 보았다고 한다. (전도사: 옥 민권)
- 김 명순, 김 명할씨 장립 집사 피택
 "씨아틀 한인 장로교회"에서는 지난 8월 7일 주일 예배 후에 김 명순·김 명할씨를 투표에 의하여 장립 집사로 선출 하였다고 한다.
- 피아노 반주자·청년 운동에 뜻있는 분을 구함
 한인 침례 교회(정 하경 목사)에서는 교회 피아노 반주 및 지휘·청년 지도를 겸할 수 있는 일꾼을 물색 중이라 한다. (542-4391로 연락)
- 선교교회 부흥집회 성료
 한인 선교교회(송 천호 목사)에서는 8월 26일 부터 3일간 박 종기 목사님을 모시고 많은 교인들이 모인 가운데서 부흥회를 가졌다고 한다.
- 씨아틀 한인 장로 교회 부흥집회 성료
 씨아틀 한인 장로교회(안 성진 목사)에서는 9월 8일 부터 11일까지 부흥집회를 가졌는데 많은 교인들이 모여 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강사는 L.A의 김 계용 목사.
- 김 례수·김 정희 권사 취임
 씨아틀 한인 복음교회에서는 지난 9월 4일 주일에 김 례수·김 정희 두분의 권사 취임식을 많은 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가졌다고 한다.

교회 대항 배구대회. 10월 22일

10월 8일 예정이었던 교회대항 배구대회는 교역자 친목회 주최로 10월 22일에 개최하기로 되었습니다. 교역자 친목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보면 9인조로 하되 여자 2명이상 포함시킬것. 3회전으로 하며 팀당 20\$의 참가비를 내어야 한다. 연락은 송 천호 목사 와 옥 민권 전도사에게 하면 된다.

아시아 만찬의 향연에 8백여명 모여 씨아틀 한인 침례교회서 참가, 활약

9월 10일 오후 5시 부터 8시에 걸쳐 중국침례 교회 친교실에서 「아시안 디너 패스티벌」이 열렸는데 미국,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인등 8백여명이 자리를 함께 하여 흐뭇한 한때가 되었다 한다. 이 행사는 미국 침례교단 소속 아시아 교회인들이 합동으로 마련한 연례 행사라하며 한인 침례교회 정 하경 목사는 멀지않아 이런행사를 할만한 한인교회가 이루어지기를 기도 한다고 한다. 한국식 불고기와 잡채는 인기가 있었으며 특히 한복 치마저고리는 많은 사람들의 눈을 끌었다고 한다. (교회 연락: 632-9485, 542-4391)



(아시안 디너 패스티벌)
 ○ 10월 초, 중순께 부흥회 예정(형제 교회)
 형제교회(최 용걸 목사님)에서는 10월 초·중순경에 부흥 집회를 약 5일간 가지리라고 하며 훌륭한 강사를 모시기 위하여 교섭중이라고 한다.

😊 집 없으면 집을 사시고
 집 있으면 집을 파세요

김 현 중 부동산 여사
 (FRANK) HYUN CHOONG KIM

* 무료봉사: 환산 이사, 로우, 양산, 배드리노,
 * 무료상담: 정확한 가격을 배드립니다.
 * 취급종류: 주력·아파트·호텔·도지
 * 점포: 기타사업 투자안내

PHONE: SEATTLE: RES. 774-7828, BUS. 774-7828, 525-7200
 TACOMA: 437-2112

헨리 장 여행사

9002 12th Ave. N.E.
 Seattle, WA 98115
 (206) 523-7057

- * 단체 모국 방문
- * 국제 국내 비행기 표
- * 민원 서류 (교포 여권, 여권 연장) 배부
- * 각종 서류 작성, 수속 대행

Henry Chang Travel Service

Advance Properties
18350 Aurora North
Seattle, Washington 98133



부동산

매매는 낮이나 밤이나
저렴한 이자로 알선해드립니다

매매 취급: 점포 · 아파트
주택 호텔

사무실 전화 624-2227
624-2228
624-2607
546-2445
집 364-9934

김 창성
올림

(공증업무취급)

남서 지역

부동산

주력 아파트 건물

식당 상점 토지

DEL BIANCO REALTY Inc.

9455 15th SW Seattle, Washington 98146

진 김
JEAN KIM
Associate
(206) 932-4515

Res. (206) 932-3595



세계문학전집 (100권)

마음의 벗이 되고 조국을 잊지 않는 후손들의
길잡이가 될 우리말로 된 세계문학전집 및
기타 교양서적을 실비로 교포 여러분께
배부코자 합니다.

세계문학전집 \$ 450.00.

JEONG EUM SA OF SEATTLE
602 PINE STREET
SEATTLE, WA 98101
Seattle 622-7786
Tacoma 588-1434
Residence 235-4346

세계전기문학전집
현대한국문학전집
중국고전문학전집
한국단편문학전집
도스토옙스끼전집
세익스피어전집
광복 30년사
아라비안나이트
소년소녀세계문학명작전집

\$ 월부로도봉사합니다.

한인회·봉사센터 운영 기부금 납부자

- Kim, Sebastian Yoeung O. 10불
- 전영환 5불
- 배춘기 10불
- 임용근 (오대양 식품) 20불
- 김현태 10불
- 이희영 20불
- 오수당 10불
- 오수남 10불
- 이동립 30불
- 이신남 10불
- 박인규 10불
- 김명환 10불
- 헨리 장 10불
- J.L. HOUSTON 직원 17불
- 김창성씨께서는 8.15 행사때 씨애틀
축구팀을 위하여 저녁 식사대금 50불을
담당 기부해 주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사·새전화

- 이종익씨 (한인회 부회장)
26843 Cardiff Ave
Kent, WA, 98031 (854-0871)
- 조병우씨 (한국일보 지국장)
7320 20th Ave N.E.
Seattle, WA, 98115 (525-9222)
- 최창하 장노 (철사)
6935 Delridge Way S.W #308A
Seattle, WA, 98106 (762-6483)
- Gina, Ha (봉사센터 카운셀러)
6955 Delridge Way S.W #306 B
Seattle WA, 98106 (762-8281)
- 유정길씨 (A.K. Motors)
10039 29th Ave N.E.
Seattle WA, 98115 (525-9084)
- 문병원씨
29517 21st PL, S. #1
Federal Way 98003 (941-4046)
- 임용근씨 (오대양 식품점)
집: 365-9844 가게: 363-6850

Job Bulletin (사람 구함)

○ 바느질에 경험 있는 사람 5명을 구합니다.
커튼 만드는 회사에 흥미 있는분은 봉사센터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624-7607)

-미주 중앙일보-

- Seattle-Tacoma 지국장 이종완
- 구독 및 안내 광고 문의는
Seattle: 235-4346
TaComa: 588-1434

• 양서출판의 기수 정음사, 씨애틀에 •

마음의 벗이 되고 조국을 잊지 않는 후손들의 길잡이가
될 우리말로 된 세계 전집이라고 합니다.
기타 교양 서적등을 교포 여러분께 정음사 도서목록에
문임을 가산한 정도의 가격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연락처: Seattle 622-7786, 235-4346
Tacoma 588-1434
이종완

한인회비 납부자 명단(속)

9/15 현재

- 84. 노병애 10불
- 85. 정하경 10불
- 86. 임용근 10불
- 87. 황금남 5불
- 88. 김종구 10불
- 89. 최수신 10불
- 90. 황기준 5불
- 91. 정태수 10불
- 92. 영원 10불
- 93. 박영식 5불
- 94. 임철용 10불
- 95. 송준 10불
- 96. 김상철 10불
- 97. 조진환 5불
- 98. 권영길 10불
- 99. 김태 10불
- 100. 이순모 10불

<정정> 오남수 → 오수남
장복안 → 장부관

한인회비 납부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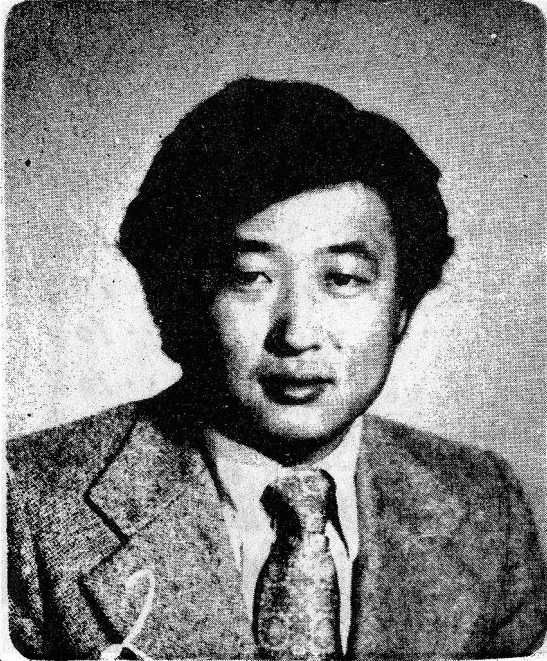
오늘날 까지 한인 회비와 보조금을 보내주신 여러분
께 감사 드립니다. 한인회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회비와 보조금등으로 운영하고 있
습니다. 회비는 1가정에 년 5불 이상으로 되어 있
습니다. 한인들의 지위 향상과 봉사센터의 원활한 운
영을 위하여는 여러분 각자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 합
니다. 기타 다른 외국인들의 단체를 생각하면 우리 한
인들의 협동정신이 아쉽기도 합니다. 자라는 우리들의
2세들을 위해서도 한인회의 활동은 나날이 발전되지
않으면 안될것 압니다. 회비 납부자는 정회원이며
총회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보내실
때는 수표를 이용하시고 회비, 기부금을 명시 하기
바랍니다.

보낼 곳: Korean Association
P. O. Box 24992
Seattle, WA, 98124

김철준
김철준

NEW YORK
LIFE

보험



SEATTLE 사무실 : 363-3704

집 : 232-9207

TACOMA 사무실 : 588-0333

CHUL J. KIM
FIELD UNDERWRI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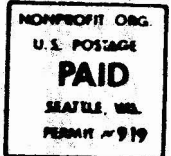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4121 SEATTLE-FIRST NAT'L BANK BLDG.
SEATTLE, WA 98154
363-3704

We guarantee tomorrow today.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 SEATTLE, WASHINGTON 98124



NON PROFIT OR

0257 000154005
HAHN MAN SOP
12904 SE 45TH LANE
BELLEVUE WA 98006